

# 다구를 찾아서

1 연재를 시작하며



## 탕법 · 제다법 따라 차 도구 변화 거듭

어떤 것이 좋은 차인가. 차를 어떻게 우려 마시는 것이 좋은가. 차를 처음 접하거나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전자는 차의 선택 기준을 묻는 것이고, 후자는 차도구의 선택과 탕법(湯法)의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모두 차를 잘 즐기기 위한 고된 고민으로 차를 즐기는 이들의 당연한 의문이다.

이번 연재에서 다루려는 것은 이러한 주제들이다. 결국 좋은 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좋은 차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다구를 갖추어야 한다. 이보다 앞서 물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나 이 연재에서는 다구를 다루려 한다.

당나라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은 차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결론적인 정보들이 잘 드러나 있다. <다경>에는 제다(製茶)의 방법론과 이에 따른 도구, 차 달일 때에 필요한 용품, 실제적인 차 달이기와 마시는 법 등 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조선의 찻사발. 일본 국보로 고호인이란 임자에 소장된 기차 예문이다

육우는 당시의 음다(飲茶) 풍속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제다와 탕법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한 인물로, 그의 공적은 차문화사(茶文化史)에 확고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로 인해 <다경>의 출현 이후 차에 대한 다양한 해답이 제시되었다.

특히 송대의 채양(蔡襄) · 웅번(熊蕃) · 조여려(趙汝礪) · 휘중(徽宗) 황제 등이 차에 대한 해결책을 기록으로 남겼다. 명대에 제다법과 탕법의 변화에 따른 이론들을 정립한 인물로는 전예형(田藝衡) · 허차서(許次紱) · 장원(張源) 등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말 선종(禪宗)과 함께 유입된 차는 선승들에 의해 고려 왕실에 영향을 미쳤고, 왕실의 적극적 차 애호로 인해 다구와 차품(茶品)은 송과 비견될 만한 수준을 이룩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쇠퇴된 차의 중흥을 이룩한 이는 초의선사(草衣禪師)이다.

차의 중요한 탕법은 제다법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당나라 때에는 전다법(煎茶法) - 혹은 자다법(煮茶法)이 유행하였는데, 차를 맛물에 갈아서 끓는 물에 넣어 우려는 방법이였다. 송대에는 점다법(點茶法) 형태로 발전된 탕법이 출현하였다. 점다법은 다관에 가루차를 넣고 끓는 물을 부은 후 다술로 저어 거품을 내는 것이다. 제다법에 있어서 최고품인

웅봉단차의 출현과 함께 정지한 탕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명대에는 포다법(泡茶法)이 개발, 정착한 시기인데, 이 포다법은 명을 세운 주원장(明太祖 朱元璋)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는 소자농의 아들로 차를 만들던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나라를 세워 황제가 된 후 제조공정이 복잡한 단차(團茶)를 금하고 산차(散茶)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제다법은 탕법에도 변화를 주어 다관에 차를 넣고 우려는 방법이 유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탕법은 현재까지도 유행되고 있다. 음용법은 제다법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구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찰잔의 기준도 시대마다 다른 유형이 유행되었는데, 당대에는 월주요(越州窯)의 청자완을 으뜸으로 쳤다. 당시의 탕색이 담황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담는 잔은 녹색빛이 드러나는 청자완을 선호한 것이

다. 송나라 황제 휘종은 백자를 좋아해서 청색색(靑黑色)이 나는 잔을 선호했으며, 채양은 건안(健安)에서 생산되는 토호잔(瓦毫盞)을 선호했다.

한편 채양은 '건안의 잔은 두꺼워서 차를 담으면 쉽게 식지 않아 좋다'고 하였으니, 차의 온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의 탕법을 드러냈다. 특히 명대에는 포다법의 변화로 인해 다구의 형태와 찻잔의 색 등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차를 우려는 차호(혹은 다관)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찻잔 역시 백자를 선호했다.

초의선사는 <다신전(茶神傳)>에서 '눈처럼 흰색이 나는 잔이 좋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완은 시대에 따라 차의 탕색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최고로 삼았다.

다기는 차에 있어서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기의 생명은 차의 색깔(色香味)과 기운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달려있으니, 이런 바탕 위에 예술적 미감을 갖추게 된 것이다.



백기연

동아시아차연구소 연구원  
bdaol@hanmail.net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발우공양



죽비 소리가 세 번 울렸다. 묵었던 발우포가 풀리고 진지(眞智)가 시작됐다. 다시 죽비소리가 울렸다. 스님은 두 손으로 조용히 발우를 들어 올렸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 몸을 지행하는 약으로 알아 /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어찌다 발우공양을 보면 우리는 평소 너무 쉽게 먹고 쉽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 없이 스쳐가는 일상이 있을 줄 알고 나면 부처님 법은 귀하고 소중하게 다가온다. 다시 빈 그릇으로 돌아간 발우 안에는 부처님 말씀이 가득했다.

사진은 2008년 3월에 있었던 문운사 주지 지명 스님의 '세상을 담은 그릇 발우전'에 전시됐던 한지 공예 작품이다.

## 옛 판화의 세계

### 포대화상이 한 사람을 기다리다 (長汀布袋)

당나라 때 주장자에 포대를 끼워 어깨에 메고 저자거리를 유희하며 다니던 사람을 포대화상이라 불렀다. 포대화상이 이렇게 저자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무리들 이뤄 포대화상의 뒤를 쫓았다. 아이들은 서로 다투며 포대화상의 포대를 뺏어 풀러보기도 하고, 물건을 꺼내 아래로 뿌리면서 '보라! 보라!'라며 외쳐대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은 석계자(史契) 스님을 포대화상(布袋和尚)이라고도 하며, 장정자(長汀子) 또는 포대사(布袋師)라 부르기도 했다. 석계자 스님은 명주 봉화현에서 태어났으며, 체구가 비대하고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었는데, 황상 커다란 자루를 둘러메고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구하거나, 시대나 인간사의 길흉 또는 일기를 점쳤다. 복덕원만(福德圓滿)한 상을 갖추고 있어 화화 · 조각 또는 시문의 좋은 제재가 되기도 했다. 또한 계(戒)를 잘하였으며, 미륵보살의 화신이라는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스님은 같은 고을사람인 장마하라는 이와 함께 목욕을 하고 있었다. 장마하는 목욕을 하던 중 스님의 등에 눈이 하나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마하는 그것을 보고 "그대가 부처님이시다"라고 하니, 스님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말했다. 그리고 장씨에게 "마하반야바라밀경"을 항상 염송하도록 했다.

또 스님이 행각할 당시 만난 진거사는 스님의 나이가 몇 살이나고 물었더니, 스님은 "허공과 나이가 같다"라고 말했다. 그 후 스님은 악림사의 동쪽 반석 위에 앉아 열반에 들었으며, 시신은 봉산에 묻혔다.

어떤 이는 "동양으로 가는 길에 스님을 만나고 돌아온 후 스님이 죽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인이란 사람은 "미륵 진미륵이 천백으로 분신하였네. 이 때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나 당시 사람들은 모두 몰랐네"라는 계승을 들었다고 말했다.

포대화상이 이렇게 미륵의 화신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가 가셨지만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없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불보살님들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화신으로 나타나 불법을 펴고 있으나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를 모를 뿐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장정포대(長汀布袋).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 × 18.0cm

신년 맞이 현불샵 특별전 17%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입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품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향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 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대형 size



참숯판부착 된 내부모습



수의 등 수납함 모습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함 모습

- 가 격 : 대형 ₩ 238,000 ⇒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소형 ₩ 198,000 ⇒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 (골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